

요양보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정도, 태도 및 요양업무 능숙도에 대한 융복합적 접근

박경옥
극동대학교 간호학과

Convergence Approach about the Knowledge, Attitude toward the Elderly, and Competence of Carers

Kyongok Park
Dept. of Nursing, Far East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요양업무 능숙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장기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145명을 대상으로 2014년 6월부터 9월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요양보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요양업무 능숙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방법은 서술통계, ANOVA, 독립 t-검정,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 태도와 요양업무 능숙도는 서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내용을 개발할 때 요양보호사의 낮은 지식수준을 고려하여 쉬운 교육내용과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증진시켜 노인 요양서비스의 능숙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 능숙도, 요양보호사, 장기요양시설, 지식, 태도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level of knowledge, attitude toward the elderly, competence of carers,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se variables. Research design employed a cross sectional descriptive study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Data were collected from 145 carers who have worked in long term care facilities from June 2014 to September 2014.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independent t-test,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perform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The competence of carers was related to a positive attitude and a higher knowledge of caring for the elderly. Therefore, educational content that considers improvement among carers who have a low level of educational status should be developed. It should require carers to have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elderly through improving the job environment in order to increase the quality of long term care.

Key Words : Attitude; Carer; Competence; Knowledge; Long term care service

Received 5 August 2016, Revised 2 September 2016
Accepted 20 September 2016, Published 28 Septem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Kyongok Park(Far East University)
Email: kopark@kdu.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공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인력으로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지원 서비스 및 식사, 목욕, 가사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 현재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수는 27만 여명으로 의료 및 복지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14만 여명의 간호사보다 많은 수이다.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도 채 안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상당히 많은 수의 요양보호사가 일선에서 요양업무를 하고 있다[2, 3]

공적인 요양업무를 시작한 지 8년이 지난 현재, 요양서비스는 가족 및 사회의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켜주고 노인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등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4]. 그러나 요양업무에 대한 이용자의 낮은 인식과 요양보호사를 무시하는 태도, 심리적, 금전적, 물리적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은 요양보호사에게 과중한 업무스트레스와 낮은 직무 만족도를 갖게 하고 있다[5,6].

요양서비스의 질은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7]. 요양업무는 기계가 아닌 요양보호사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노인들과 직접 대면하여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노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긍정적인 태도는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요소이다[8]. 또한 요양보호사의 노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긍정적인 태도는 서비스 이용자와의 관계에서도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줄 수 있고 요양업무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노인 학대 문제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8,9,10,11]. 따라서 노인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노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며 노인의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은 정확하고 능숙한 요양업무 수행으로 이어져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노인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어 왔는데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와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10, 12, 13],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과 요양서비스의 질과의 관계 연구[12], 요양보호사의 근무경력이나 이직 의도와 같은 직무 특성과 요양서비스 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12, 14] 등이 있었다. 그러나 요양서비스의 핵심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직접적인 요양서비스 능숙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요양서비스 능숙도는 요양보호사가 요양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를 나타내는 것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요양서비스 능숙도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요양업무 능숙도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지식정도, 태도, 요양업무 능숙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정도, 태도, 요양업무의 능숙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정도, 태도, 요양업무 능숙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정도, 태도, 요양업무 능숙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지식정도, 태도, 요양업무 능숙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 대상자는 서울, 경기도, 충청북도 지역의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편의 표출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전국의 노인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표적 모집단으로 하고 서울, 경기, 충청북도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중 1) 노인 요양시설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2) 설문지의 질문을 이해할 수 있으며 3) 설문 응답에 동의한 150명을 근접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독립변수 수를 고려하여 유의수준 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로 하였을 때 110명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이 다른 직종에 비해 높아 주요 변수에 대한 무응답율이 높을 것을 고려하여 150명에 대한 자료가 조사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였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거나 주요 변수에 대한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145명의 자료가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설문조사에 참여 할 조사자 15명을 뽑은 후 설문 조사를 위한 교육과 토론을 한 후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를 위한 교육은 본 설문의 목적과 각 설문 문항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서로 짝을 지어 설문 문항에 대해 묻고 답하는 과정을 거쳐 설문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예측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통일성 있게 응답할 수 있게 하였다. 교육이 끝난 후 조사자들은 설문 지역을 나눠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대한 질문 시간은 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설문조사 전에 조사자는 응답자에게 설문 조사를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설문작성을 중단할 수 있음을 알리고 설문지 작성에 동의한 대상자만을 설문 조사하였다.

2.3 연구 도구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노화과정과 노인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노인에 대한 지식측정 도구는 노화 및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편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Palmore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15] 임영신 외[16]에 의해 한국 노인 실정에 맞추어 수정 보완한 25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신체적 영역(11문항), 심리적 영역(6문항), 사회적 영역(8문항) 등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별로 정답은 1점, 오답과 모르겠다는 0점으로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8이었고[16]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9이었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노인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신념, 가치관, 감정 등을 의미하며 태도측정은 Sanders 등[17]이 개발한 의미 분별척도를 한정란[18]이 번역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현명한-어리석은, 친절함-불친절한, 이기적인-관대한 등 20개의 상반되는 형용사 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여 1점은 매우 부정적, 7점은 매우 긍정적임을 의미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한국어 번역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9이 었고[18]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3였다.

요양업무 능숙도는 요양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 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요양보호사 직무분석표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의 직무를 35문항으로 분류하고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9]. 1점은 “매우 못한다”, 5점은 “매우 잘한다”를 의미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요양업무가 능숙함을 의미한다. 요양보호사의 직무는 신체수발업무에 신체청결 지원하기, 식사 수발하기 등 6 문항이 있고, 건강관리업무에 건강상태 체크하기, 영양식단 관리하기 등 7문항, 가사활동지원업무에 식사준비하기, 주거환경관리하기 등 6문항, 정서적 서비스 업무에 말벗대화하기, 임종준비하기 등 5문항, 행정업무에 활동일지 작성하기, 업무 보고하기 등 5문항, 자기개발업무에 보수교육참여하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등 6문항이 있다. 본 연구에 사용한 요양업무능숙도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5이었다

2.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하였다.

-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요양업무 능숙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지식, 태도, 요양업무 능숙도의 차이는 일원분산분석 및 Scheffe사후검정을 사용하였고 독립 t-검정을 실시하였다.

-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요양업무 능숙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를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무의 능숙도(4.02±0.71)가 가장 높았고 자기개발업무의 능숙도(3.18±0.75)가 가장 낮았다<Table 2>.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3.3(±6.40)세였으며 여자가 135명으로 93%를 차지하였고 고등학교 졸업자가 91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중학교 졸업 이하 대상자도 30명(20.7%)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근무하는 시설의 정원은 51~100명 이하의 시설이 42.1%로 가장 많았다. 고용형태로는 비정규직이 55.2%로 정규직보다 많았고 근무경력은 평균 48.2(±33.40)개월 이었다<Table 1>.

<Table 1> Subjects' Characteristics (N=14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Age (year) Range (36-72)	< 50	40(27.6)	53.33±6.40
	≥ 50	95(65.5)	
	missing	10(6.9)	
Gender	Male	10(6.9)	135(93.1)
	Female	135(93.1)	
Education	≤Middle school	30(20.7)	91(62.8)
	High school	91(62.8)	
	≥ College	24(16.5)	
Number of patients at the facilities	≤ 10	6(4.1)	55(37.9)
	11~30	55(37.9)	
	31~50	2(1.4)	
	51~100	61(42.1)	
	> 100	21(14.5)	
Type of employment	Temporary employee	80(55.2)	65(44.8)
	Permanent employee	65(44.8)	
Years of working (month) Range (1~120)	< 3 ^a	50(34.5)	48.17±33.40
	3 ~ 5 ^b	32(22.1)	
	> 5 ^c	55(37.9)	
	missing	8(5.5)	

3.2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능숙도 평균

노인에 대한 지식의 총점은 25점에서 평균 12.02(±2.51)점으로 나타났고 태도점수는 7점 척도에서 4.27(±0.54)점으로 긍정적이었으며 35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된 대상자의 요양업무 능숙도 평균은 3.65±(0.59)점으로 잘하는 편이었다. 업무 능숙도의 각 영역별 평균 중 신체수발업

<Table 2> Average Knowledge, Attitude, and Competence of Sample (N=145)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Knowledge, Range (3 - 25)		12.02±2.51
Attitude, Range (20 - 140)		4.27±0.54
Competence, Range (35 - 175)	Physical assistance	4.02±0.71
	Health management	3.78±0.79
	Housework assistance	3.63±0.70
	Psychological support	3.61±0.77
	Administrative work	3.69±0.75
	Self development	3.18±0.75
	Total	3.65±0.59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요양업무 능숙도의 차이

대상자의 지식정도는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F=5.127, p=.007) 노인에 대한 태도는 연령과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50세 이하의 대상자가 50세 이상의 대상자에 비해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t=2.837, p=.005). 또한 정규직인 대상자가 비정규직인 대상자에 비해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았다(t=2.990, p=.003). 대상자의 업무 능숙도는 시설규모 (F=9.871, p<.001)와 근무경력(F=3.264, p=.041)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Table 3>.

3.4 요양보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능숙도의 관계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요양업무 능숙도는 지식정도 (r=.213, p=.010), 태도(r=.194, p=.019)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among Knowledge, Attitude, and Competence of Carer (N=145)

	Knowledge r(p)	Attitude r(p)	Competence r(p)
Knowledge	1.0	.177 (.033)*	.213 (.010)*
Attitude		1.0	.194 (.019)*
Competence			1.0

* p<.05

<Table 3> Differences of Knowledge, Attitude, and Competence by Sample Characteristics (N=145)

Characteristics	Categories	Knowledge		Attitude		Competence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10.80±4.13	-0.992	4.16±0.31	-.631	3.43±0.51	-1.221
	Female	12.11±2.34	(.346)	4.28±0.55	(.529)	3.66±0.59	(.224)
Age	< 50	12.20±0.11	0.618	4.47±0.52	2.837	3.56±0.61	-1.100
	≥ 50	11.90±2.68	(.537)	4.18±0.55	(.005)**	3.69±0.60	(.273)
Education	≤Middle school ^a	11.13±2.59	5.127	4.27±0.56	0.051	3.600.54	0.989
	High school ^b	12.00±2.41	(.007)**	4.26±0.53	(.950)	3.63±0.58	(.374)
	≥ College ^c	13.30±2.39	(a,b < c)	4.30±0.58	(a=b=c)	3.79±0.64	(a=b=c)
Number of patients at the facilities	< 50 ^a	12.55±2.48	2.507	4.36±0.45	2.546	3.85±0.57	9.871
	50 ~100 ^b	11.68±2.54	(.085)	4.25±0.60	(.082)	3.59±0.60	(<.001)***
	>100 ^c	11.47±2.39	(a=b=c)	4.05±0.55	(a=b=c)	3.24±0.31	(a>b>c)
Type of employment	Temporary employee	11.88±2.49	.743	4.14±0.55	2.990	3.57±0.58	1.758
	Permanent employee	12.20±2.56	(.459)	4.41±0.50	(.003)**	3.74±0.59	(.081)
Years of working (year)	< 3 ^a	11.68±2.20	2.219	4.30±0.53	.260	3.53±0.47	3.264
	3 ~ 5 ^b	11.63±2.92	(.113)	4.28±0.48	(.772)	3.54±0.58	(.041)*
	> 5 ^c	12.58±2.43	(a=b=c)	4.23±0.57	(a=b=c)	3.79±0.65	(a,b < c)

* p < .05 , ** p < .01 , *** p < .0001

4. 논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지식정도, 태도, 요양업무 능숙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 본 연구에서 지식 정도와 태도는 타 연구들에서 보고한 점수보다 높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10, 20]. 이것은 타 연구들의 연구목적이나 대상자의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할 때 단순비교는 어려우나 중간 이상의 지식수준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본 연구의 요양서비스 능숙도는 타 연구에서 4점 척도로 측정된 수행정도보다 낮았는데[20] 서로 다른 척도를 사용한 두 연구를 직접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두 연구 모두 연구 대상자 스스로 능숙하게 서비스를 수행한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의 지식, 태도 및 요양업무 능숙도의 차이에서는 교육 정도에 따라 노인에 대한 지식 정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것은 다른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였다[20, 21]. 본 연구에서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요양보호사가 30명(20.7%)이고 타 연구에서는 50% 이상이었다[20]. 이것은 학력이나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육과정과 시험 통해 자격을 주고 있는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 제도를 고려할 때 이해하기 쉬운 교육내용과 다양한 교육방법의 개발로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할 것이다.

50세 미만의 대상자가 50세 이상의 대상자에 비해 노

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는데 이것은 요양보호사의 나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태도가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들[10, 22]과 나이가 많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한 연구[23],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아니지만 요양업무의 또 다른 주요 종사자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이에 따른 태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 [24]와 상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나이와 같은 인구학적 특성과 노인에 대한 태도의 관계에 대하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대상자의 고용형태와 같은 근무 환경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에서는 정규직 대상자가 비정규직 대상자에 비해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특성과 직무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과 같은 고용형태에 따라 직무만족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이직 고려와 같은 고용의 불안정성, 월급여와 같은 근무환경 특성이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규직 요양보호사가 비정규직에 비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데 충분하지 않지만 고용형태, 이직고려, 월 급여와 같은 근무환경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시설규모에 따라서 요양업무 능숙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규모가 작은 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능숙도가 큰 규모의 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에 비해 높다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미국의 100인 이상의

대규모 장기요양시설과 소규모 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만족과 요양서비스 수준을 비교한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이다[25].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대규모 요양시설 종사자가 소규모 시설 종사자에 비해 직업만족은 높고 이직의도는 낮았으며 서비스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0인 미만시설에서 요양업무 능숙도가 가장 높았으며, 100인 이상의 시설에서 요양업무 능숙도가 가장 낮았다. 이것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요양시설 인력배치 기준에 의하면 입소 정원인 50인 이상일 때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 요양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인력을 갖추고 있다. 이것은 50인 미만의 작은 규모의 시설에서는 간호사나 의사와 같은 다양한 인력들의 협조를 쉽게 구할 수 없어 다양한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해야만 하는 환경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의 영향으로 요양보호사의 업무 능숙도가 여러 보건복지 인력을 포함하고 있는 대규모 요양시설에 비해 높은 업무능숙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된다. 또한 미국 요양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단순 비교는 어려우므로 추후 시설 규모에 따른 요양서비스 수준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적정 수준의 요양시설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경력에 따라 대상자의 요양업무 능숙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5년 이상의 경력 요양보호사가 5년 이하의 요양보호사에 비해 요양업무 능숙도가 높았는데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임상경력에 따라 업무성과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26, 27]. 이는 경력이 많을수록 요양시설의 노인과 접촉경험이 많고 대상자의 문제 상황이나 요양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대처능력이 높으며 노인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짐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9].

연구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요양업무 능숙도의 관계에서 상관정도는 높지 않으나($r=.213 \sim .194$)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요양보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요양서비스의 질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9]. 또한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양의 상관관계($r=.283, p<.001$)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24]와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요양서비스 질이

양의 상관관계($r=.310, p<.001$)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28].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한 연구는 아니지만 보건계열 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융복합기반의 교육방식으로 도입한 연구결과[29]를 고려할 때 지식수준이 높지 않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한 교육을 실시할 때 요양서비스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시작된 보편적 공적서비스인 요양서비스의 핵심은 요양보호사이다[7, 30]. 학력정도를 고려한 쉬운 교육으로 노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하고 근무환경 개선으로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경력에 따른 요양서비스의 능숙도를 고려하여 경력이 많은 요양보호사에게는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경력이 낮은 요양보호사를 관리하는 업무를 주어 요양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지식정도, 태도, 요양업무 능숙도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 노인에 대한 지식정도는 높은 수준이었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요양업무 능숙도는 타 연구에 비해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의 지식, 태도 및 요양업무 능숙도의 차이에서 교육정도에 따라 노인에 대한 지식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시설규모, 고용형태, 경력등은 요양보호사의 요양업무 능숙도에 차이를 나타냈는데 50인 미만의 시설규모 종사자, 정규직 고용형태, 요양업무 경력이 많은 요양보호사에서 업무 능숙도가 높았다. 연구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요양서비스 능숙도 간의 관계는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학력수준을 고려한 쉬운 교육내용과 다양한 교육방법에 대한 개발과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을 통해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연구 대상자는 서울, 경기, 충청북도의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본 연구의 요양서비스 능숙도는 객관적인 척도가 아닌 대상자의 주관적인 응답을 바탕으로 분석된 것이므로 요양서비스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척도를 사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와 대상자의 요양업무 능숙도는 지식정도, 태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상관관계가 낮았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적용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후 재가 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Welfare of the Aged Act.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8129&efYd=20160101#0000> (accessed May, 15, 2016).
- [2] Korea Long Term Care Worker Association. Available From: <http://www.caremanager.or.kr> (accessed May, 15, 2016)
- [3] Korea Nurses Association. http://www.koreanurse.or.kr/resources/be_nurse.php (accessed May, 15, 2016)
- [4] Y. M. Choi, H. W. Moon, "The research about the models of schooling long-term caregivers-through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Japan Ghaeo caregiver, home help", *Korean Journal of Care Management*, Vol. 8, No. 12, pp 1-20, 2014.
- [5] J. A. Kim, "Study for the job satisfaction of nursing caregiv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2010.
- [6] Y. T. Kim, H. W. Kim, Y. B. Yeom, "A study on the critical variable of job satisfaction of care giver between Long term and home base care service center",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46, pp.53-76, 2009.
- [7] W. Y. Lim, "The factors affecting on recognition of professionalism of caregivers", *Journal of welfare and counselling education*, Vol. 1, No. 1, pp. 65-80, 2012.
- [8] H. K. Choi,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attitude on the elderly in the geriatric facilities and job satisfaction by care helpers on the quality of serv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2014.
- [9] H. J. Shin, "The relation between the caregivers' knowledge, attitude and service quality for the older adults in nursing hom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2011.
- [10] K. N. Chon, O. I. Park, H. Moon, "The effect of caregiver'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on job stress",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Vol. 21, No.1, pp.19-32, 2010.
- [11] K. J. Kwon, S. Y. Lee, T. J. Park, "Analysis on elder abuse of the Korea elderly long-term care hospita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1, pp. 553-560, 2016.
- [12] H. J. Lee, S. H. Kwon, "The effects of work environment characteristics and job stress on the job satisfaction among caregiver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51, pp. 125-144, 2011.
- [13] E. H. Lee, B. K. Jung, "A study on eco-systemic factors that affect the job satisfaction of the care givers who involved in long term care service center",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0, No. 10, pp. 383-388. 2012.
- [14] S. Y. Yoon, Y. S. Seo, Y. C. Kwon, "Factors influencing the turnover intention in long term care hospital care worker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 pp. 321-329. 2015
- [15] E. B. Palmore, "The facts on aging quiz 2nd ed". Springer, New York, 1998.
- [16] Y. S. Lim, J. S. Kim, K. S. Kim,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22, No.1, pp.31-46, 2002.
- [17] G. F. Sanders, J. E. Montgomery, J. F. Pittman Jr, C. Balkwell,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Vol. 3, pp. 59-70. 1984.
- [18] J. R. Han,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23, No. 4, pp.181-194, 2003.
- [19]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vailable From : http://www.krivet.re.kr/ku/ca/prg_kuADBvW.jsp?gn=E1-E120140388&myCategoryCode=publication (accessed May, 15, 2016)
- [20] J. Y. Jung, Y. S. Young, "Elder care related knowledge, attitudes, nursing practice and awareness of elder abuse in geriatric hospital health personnel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 14, No.3, pp. 233-241, 2012.
- [21] M. H. Jeong, S. S. Kwon,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elders of certified caregiver trainee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 11(1), pp. 51~61, 2009.
- [22] H. S. Jung, "The association between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s the elderly and quality of care service among home caregiv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2015.
- [23] Y. A. Kim, H. S. Yoon, "Analyses of factors influencing caregivers' attitudes toward elders in long term care facilitie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 14, No.3, pp. 173-181, 2012.
- [24] S. H. Kim, N. H. Kim, "The effects of rehabilitation hospital nurses' professional autonomy and self-efficacy on professional self-concept",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1, pp. 165-174, 2016.
- [25] S. H. Lee, Y. J. Choo, L. Huffman, N. Cordero, "Service orientation, job satisfaction, job dis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leave in large and small long-term care facilities - an empirical analysis-", Korea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Vol. 26, No.6, pp. 465-485, 2012.
- [26] H. N. Sun, C. Jung, "An analysis of nursing competency affecting on job satisfaction and nursing performance among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6, No. 3, pp. 286-294, 2010.
- [27] G. N. Gang, "Factors influencing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in small-medium sized hospit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8, No. 2, pp. 155-165.2012
- [28] L. S. Lee, "The Effect of the attitude toward the elderly and job satisfaction by caregivers on the quality of service: Comparison research with elderly care facilities and home care facilities by caregiv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Daegu, 2012.
- [29] E H. Park, H R. Park, H S. Kim, "Approaches to convergence curriculum for healthcare-affiliated students with clinical competence assessment program",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3, pp 79-86, 2015.
- [30] M K. Kim, D Park, O Ahn, "The care giving burden of primary caregiver based on nursing needs of long-term care insurance grad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5, No. 3, pp 8- 16, 2014.

박 경 옥(Park, Kyongok)



- 1988년 2월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02년 8월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05년 8월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4년 4월 ~ 현재 : 극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성인 • 노인간호, 치매간호
- E-Mail : kopark@kdu.ac.kr